힘 얻는 코로나 팬데믹 종식론

세계 곳곳 정점 지나는 중
WHO "재유행, 팬데믹 아닐 것"
미국 확산세도 꺾여
파우치 "일반 감염병 될 듯"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간다는 기대가 조심스럽게 나온다. 오미크론 변이가 일찍 출현해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은 세계 곳곳에서 확산세가 일제히 정점을 지나고 있기 때문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사무소는 유럽에서 코로나19가 주기적으로 발생하거나 풍토병으로 굳어지는 엔데믹을 향해 가고 있다고 23일(현지시간) 진단했다.

오미크론 변이는 기존 변이보다 전염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전례 없는 속도로 많은 이들을 감염시켰다. 광범위한 감염, 적극적 백신 보급에 힘입어 면역력을 지닌 인구의 비율이 높아진 까닭에 확산이 억제될 것이라는 기대가 뒤따른다. 한스 클루주 WHO 유럽사무소 소장은 "팬데믹의 끝을 향해 가고 있다고 볼만 하다"고 상황을 요약했다. 그는 유럽에서 올해 3월까지 전체 인구의 60%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되고 연말에 코로나19가 재유행해도 팬데믹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다.

WHO 유럽사무소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를 포함해 53개국을 관할하고 있다. 이 지역 누적 확진자는 이날 현재 1억3017만4000여 명인데 최근 일주일 확진이 무려 998만9000여 명에 이른다. 하루 신규확진은 지난 20일 170만 명으로 역대 최고점을 찍은 뒤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는 오미크론 변이가 먼저 출현해 급격한 확산과 빠른 둔화를 거쳐 위기가 해소된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유사한 추세로 읽힌다. AFP통신은 오미크론 변이가 백신 접종자에게는 기존 델타 변이보다 중증 위험이 일반적으로 낮다는 연구결과를 주목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계절독감처럼 변해가기 시작할 것이라는 오랜 기대가 힘을 얻는다고 유럽의 현재 상황을 해설했다.

유럽과 함께 오미크론 변이의 상륙과 함께 신규확진이 급증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비슷한 전망이 나온다. 미국의 감염병 최고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은 올해 2월을 미국의 정점으로 예측했다. 파우치 소장은 이날 ABC방송 인터뷰에서 "상황이 좋아 보인다"며 "지나치게 자신만만해선 안 되지만 지금 당장은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 동북부, 중서부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미 정점을 지나 신규확진이 급감하고 서부, 남부에서도 정점을 향하고 있다는 진단에 따른 낙관이다.

뉴욕타임스가 보건당국 자료를 토대로 집계한 코로나19 현황을 보면 미국 전역에서 하루 신규확진은 이달 14일 80만6801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뒤 계속 급감하고 있다. 미국도 전파력이 세지만 백신 접종자에게 중증 위험은 떨어지는 오미크론 변이가 일찍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은 국가다.

인구가 3억3500만 명 정도인 미국은 공식통계만 따질 때도 인구의 5분의 1 정도인 7047만 명 정도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 누적 사망자는 무려 86만5000여 명에 달한다.

유럽 전문가와 마찬가지로 파우치 소장도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더라도 일반적인 독감처럼 통제할 수준일 것으로 기대했다. 파우치 소장은 "감염 수위가 '통제 영역' 아래일 것"이라며 "여기서 '통제'라는 것은 바이러스를 아예 없앨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아는 일반적 호흡기 감염병과 함께 묶일 정도로 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링컨 기념관 주변에 모인 시위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8일(현지시간) 러시아군 장갑차들이 크림반도의 한 고속도로를 따라 이동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접경에 약 10만 명의 대군을 배치한 데 이어 우크라이나 북쪽의 벨라루스에도 병력을 집결시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연합뉴스

미, 우크라주재 대사관 직원가족 철수령

국무부 "국경 상황, 예측 불가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이 2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관 직원의 가족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다.

A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 우크라이나의 미국 대사관 직원 가족에 철수 명령을 내리고 비필수 인력에 대해선 자발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출국해도 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러시아의 군사행동 위협이 지속함에 따라 23일부로 미 정부가 직접 고용한 인력에 자발적 출국을 허용하고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소재 대사관 직원의 가족에 출국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에 있는 모든 미국인에게 우크라이나를 떠나라고 권고했다.

미 국무부 당국자는 "이번 조치가 미국 대사관의 철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관은 계속 운영될 예정"이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지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는 성명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상당한 규모의 군사 행동을 계획 중이라는 보도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미 국무부는 이날 러시아를 여행 경보 최고 단계인 4단계(여행 금지) 국가로 재지정했다. 국무부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긴장 고조, 미국인을 노린 러시아 당국의 괴롭힘과 임의적 법 집행, 미 대사관의 러시아 내 미국인 지원 제약, 코로나19와 이에 따른 입국 제한, 테러리즘 등을 여행 금지령의 이유로 설명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러시아의 군사 배치와 훈련이 이어지는 데 따라 러시아 현지에 있거나 여행하려는 미국인은 국경 상황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전쟁 위기가 높아지는 데 대해 러시아 외교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거짓 정보로 우크라이나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입장이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미국이 해군 군함, 공군 군용기뿐 아니라 1000~5000명 규모의 병력을 발트해와 동유럽 지역의 나토 동맹에 파병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상황이 악화하면 이 병력 규모가 10배로 늘어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타이태닉호 '어린이·여성 먼저 대피'는 과장된 이야기"

"선장 명령 지켜지지 않아
살아남은 이들 남자가 많아"

1912년 4월 타이태닉호 침몰 당시 남자들이 어린이와 여성을 먼저 대피시켰다는 이야기는 과장됐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영국 데일리 텔레그래프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사건 관련 전문가이자 작가인 클라에스-고란 베터홀름은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이 난파선 전시회와 관련해 '더 메일 온 선데이스 유'와 가진 인터뷰에서 사고 당시 마지막 구명정을 타고 살아난 이들 가운데는 남자들이 많았다고 주장했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스웨덴 출신으로 이번 전시회 큐레이터인 그는 케이트 윈즐릿과 리어나도 디캐프리오가 주연한 블록버스터 영화 '타이태닉' 덕분에 세계인들이 110년 전 사건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할 이야기가 많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여자와 어린이의 대피 이야기 등 '신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이 비극적 사건을 반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베터홀름은 당시 여자와 어린이를 구명정에 먼저 태우라는 선장의 명령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우현에 있던 일등 항해사 윌리엄 머독이 먼저 대피하면서 남자들이 구명정에 타는 것을 제지하지 못했으며, 생존한 323명의 남자 가운데 80%가 이곳 구명정을 타고 내렸다고 밝혔다. 타이태닉호에 타고 있던 사람은 모두 2천208명으로 생존자는 695명이다. 그러나 반대편에 있던 이등 항해사 찰스 라이톨러는 여자와 어린이를 먼저 태우라는 선장의 명령을 곧이곧대로 따라 65명이 탈 수 있는 구명정에 고작 28명만 태우고 남자들을 배에 둔 채 떠났다.

베터홀름은 또 승객들의 국적에 대해서도 잘못 알려진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영화 등을 통해 알려진 것처럼 승객들이 백인 위주가 아니라 시리아와 레바논 등지에서 새로운 삶을 찾아 나선 아랍인들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승무원 중 이들의 비율은 다섯 번째로 많았고, 이들은 프랑스 북부 셰르부르에서 합류했다고 베터홀름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사드, 실전 첫 성공…UAE서 반군 미사일 요격

우리나라에도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가 아랍에미리트(UAE)에서 탄도미사일 실전 요격에 성공한 첫 사례가 나왔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미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뉴스는 22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17일 예멘 반군 후티(자칭 안사룰라)가 아부다비를 공격할 때 사드가 가동돼 중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요격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아부다비 국제공항과 석유시설을 노린 후티의 공격으로 시설 노동자 3명이 죽고 6명이 다쳤다.

UAE는 후티가 크루즈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드론을 모두 사용해 여러 차례 공격을 가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 공격에 대해선 요격에 성공했지만 나머지는 놓쳐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미사일이나 드론 공격을 막아내고, 어떤 것을 놓쳤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UAE에 배치된 사드도 이때 가동돼 탄도미사일을 요격한 것으로 보인다. 주워싱턴 UAE 대사관과 사드 개발사인 미 방산업체 록히드마틴은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사드는 고도 40~150㎞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대공 방어 체계로, 발사대 6기와 요격미사일 48발 등이 1개 포대를 이룬다. 미국에서 1990년대부터 개발이 진행된 사드는 2008년 실전 배치에 들어갔다. 이후 2019년 8월까지 진행된 시험 가동에서는 16회 연속 미사일 요격에 성공했으나 실전에서 성공 사례가 보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피쉬데이㈜는 2015년에 설립되었으며, 연매출 100억원, 사원수 20여명 규모의 평균나이 33.6세, 20~30대의 젊은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농수산물 유통전문 업체입니다.
광주/전라남북도 전역에 유통 판매하고 있으며, 피쉬데이 직영점을 포함 백화점, 하이퍼마켓 입점운영과 자사 홈페이지, 온라인마켓 등 온오프라인을 겸비한 다양한 유통채널을 직접 운영하며 탄탄한 영업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VOYAGE TO GROWTH, WITH FISHDAY
피쉬데이와 함께 성장해 가는 항해

FISHDAY 피쉬데이
싱싱한 약속 피쉬데이

피쉬데이 정규직 채용공고

| 모집분야 |

모집분야	웹디자이너	매장 영업 (수산 판매/관리)	물 류
직무내용	포토샵 / 일러스트 능숙자 상품 판매를 위한 상세페이지 제작 SNS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관리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근무자 1대1 코칭으로 초보자분도 어려움 없이 간단한 생선손질부터 회, 초밥까지 배울수 있는 기회	수산물 유통 (냉동탑차 납품/배송) 1톤 냉동탑차 배송 수산물을 광주/전남권 매장별로 배송
근무시간	주5일 (월~금) 09:00~18:00	주6일 (격주휴무) 09:30~19:30	주6일 (월~토) 04:30~13:00
우대사항	관련 자격증, 경력 1년 이상	차량소지자 우대 (전남권 근무시 유류비 지원)	자동차 운전면허(필수)

| 주요복지 |

업무 숙련도에 맞춰 빠른 진급과 급여 인상 보장.
명절 상여금 (추석, 설/연2회) , 하계휴가비 지원, 내일채움공제 가입, 생일상여금, 가정의달 선물 증정 등

| 문의 연락처 | 1522-4268, 010-7628-9292